

잃어버린 사자를 찾아서¹⁾

- 창세기 12장 10-20절

이한영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 구약학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자비를 베푸는 삶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도사적인 일상을 실행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답은 아주 복잡하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는 하나의 큰 포괄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만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행동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바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믿음과 교훈의 예표가 된다(히 11:13). 특별히, 여러 면에서 반복되는 총 3번에 걸친 창세기의 언약서술(창 12; 15; 17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초기 소명에서 맺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직후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이야기(창 12:10-20)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축

1) 아래의 설교는 2009년 11월 한국성서학연구소에서 주최한 제3회 성서학 학술마당에서 발표한 저자의 “구약텍스트의 면밀한 읽기”에서 창세기 12장 10-20절 본문분석을 인용하여 설교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복이 성취되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의 약속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의 약속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리고 그 약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 것일까? 이에 관련하여 먼저, (1) 창세기에 기술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개하고 이어서, (2) 본문 창세기 12장 10-20절을 중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중요성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체결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최초로 언급된다. 첫째,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될 것이다(창 12:2). 셈(צם)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히브리어로 동음인 셈, צם), 즉 자신들의 셈을 높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하셨다(창 11:4). 그러나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 즉 아브라함의 셈(צם)은 하나님 자신이 복되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세상의 복이란 의도적이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으나 언약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높여 주시는 그의 약속에 있다. 소명도 언약도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창 12:2-3; 17:4-6).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당대를

초월하여 미래적인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15:4-5; 17:16) 점차적으로 성취될 것을 암시한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후손에 대한 구속사적인 약속의 유효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며(창 22:17; 26:4; 출 32:13; 신 28:62; 갈 3:8-9; 12:3) 동시 아직 미래적인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미리(already) 확신하면서도 아직(not yet)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존 시에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은 다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받은 것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義)로 여기셨다”(창 15:6; 롬 4:3). 우리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약속만을 신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지금 행동하는 데 있다.

셋째, 땅의 약속(창 12:7; 17:8)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중심에 있는 후손과 땅의 약속은 앞으로 못별과 같은 자손(창 15:2-5)들이 에덴동산의 경계와 유사한 땅(15:18-21)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요 초점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출 19:6).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앞으로 받을 모든 땅을 다 토해 내야 한다(레 18:28). 땅은 언약백성들의 최종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그 모든 땅이 그에게 속한 것임을 밝히시고(출 19:6; 레 25:23) 그 땅에 대한 특별한 도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그 땅을 투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사 5:8).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땅과 그것으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부에 우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 땅을 넘어 그 땅에서의 거룩하고 제사장적인 삶과 이를 통한 영원한 새로운 땅을 약속하고 있다(계 21:1-5).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이였을까? 그것은 땅에 앞서 앞으로 그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아니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적 계보를 당대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명을 잠시 잊고 그도 땅에 집중했음을 그의 이집트 행 서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아브라함의 언약확인(창 17)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첫째는 아브람과 사래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브람(אַבְרָם)은 아브라함(אַבְרָהָם)으로 여럿의 아버지(father of many)라는 뜻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father of many people)로 바뀌었고 사래(שרַי)는 사라(שָׂרָה)로 열국의 어미(창 17:16)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둘째는 이 언약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 이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자신과 더 나아가 시나산의 언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언약(렘 31:31; 눅 22:20)까지를 바라보게 한다. 세 번째로 언약비준의 표징으로서의 할례(17:9-14)이다. 양피를 베는 것은 아담과의 언약의 표징인 가죽을 떼오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더 상징적인 것은 피 흘림이다. 로버트슨(P. Robertson)은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행된 피로 맺은 관계(bo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라고 정의한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히 9:22; 레 17:11)라고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언약이 지니고 있는 메시아적 대속의 본질을 잘 묘사해 준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가 되어야 하며 그 후손 중에 대속의 피를 흘릴 자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

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의 당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라의 임신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이야기(창 12:10-20)에서 우리는 그가 그러한 사라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러 소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려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갔다(12:10).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이에 바로는 사라를 자기 궁으로 이끌었다(12:11-15).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사라를 구원하시고(12:16-17)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명하셨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로가 내린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 이집트를 떠났다(12:20).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에서도 반복된다. 아브라함이 네게브에 이르러 생존을 위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인다. 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사라는 화를 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땅을 얻게 된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이야기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바라보게 한다. 예로 다음과 같은 출애굽기 1장 1절-13장 22절의 플롯 모티프 구조를 대조해 볼 수 있다.

[창세기 12:10-20]

- A 문제:** 1. 기근으로 인한 이집트행(12:10)
- B 갈등상승:** 2.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난(12:11-15)
- C 갈등전환:** 3. 아브라함의 축복과 바로의 저주(12:16-17)
- B' 갈등해소:** 4.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냄(12:18-19)
- A' 해결:** 5.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이집트를 떠남(12:20)

[출애굽기 1:1-13:22]

- A 문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변성(1:1-2:10)
- B 갈등상승: 모세가 이집트사람을 죽임: 도피와 귀국(2:11-7:7)
- C 갈등전환: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에 대한 재앙(7:8-11:10)
- B' 갈등해소: 유월절(12:1-30)
- A' 해결: 출애굽과 홍해도하(12:31-13:22)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창 45:6; 46:1-7; 민 20:15).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김같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바로를 저주하셨듯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부를 가지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주권적으로 구속하시고 그들이 큰 부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다. 오경의 화지는 이 두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의 불신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임을 바라보고 믿게 한다.

여기서 본문을 읽으며 쉽게 넘어가는 사라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 번 위기에 닥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있어 그 핵심과 관련된 사라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적 후손을 통한 열방의 구원이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대한 비전이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가장 연약하고 쉽게 잃어버린 나이든 한 여인, 사라의 임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으나 기근이 올 때면 생존의 본능이 앞서 갔다. 사실 후손의 약

속을 받고 나서도 그는 아내이며 이복 누이인 사라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그를 오라비로 소개할 것을 강요했다(창 20:12-13). 후손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미 백세가 된 아내를 보면서 속으로 그 약속을 비웃었다(17:17).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의 비리를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기근과 사라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3. 잃어버린 사라를 찾아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서운 기근들이 종종 문을 두드린다. 돈의 기근, 관계의 기근, 견디기 힘든 심신의 기근. 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노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라를 이 세상의 바로에게 포기한다. 사라를 이미 너무 늙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사라와도 같다. 불가능해 보이며, 먼 미래라 보이지 아니하며,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며,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다. 당장 우리는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라를 생각하거나 보호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기되고 잊히게 된다.

우리는 고대근동 문화권에 살았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둘은 인간이라는 심층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어도 단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생존의 세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근으로 다가온다. 그 배고픔과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나서지만 모두에게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은 타향이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유목민이다. 오늘날 역사적 바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종교적, 그리고 영적인 바로가 있다. 그 억압 아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떨며, 비겁하며, 속이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라와 같은 나의 가장 귀한 신앙의 요소들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바로에게 붙어 기생하는 이 세상의 왕자들은 사라를 바로에게 끌고 간 것처럼 끊임없이 약한 나를 괴롭힌다.

이러한 갈등과 고난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이야기(창 12:10-20)는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에서 갈등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바로와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다. 이는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해결이 없음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이집트행 이야기에서 갈등의 전환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으로만 가능하였다. 그 분만이 바로의 마음과 갈등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것이다. 해 아래 인생은 삶의 기근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항상 풍요로운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어느덧 포기하고 잃어버린 사라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분만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임신을 가능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창 21:1-2).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이집트와 바로를 바라보지 말자.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연약하고 늙었다고 사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우주만물을 말 씬으로 창조하시고 한번 세우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예비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사라를 다시 찾자!

:: 이한영 미국 성경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A., M.Div., S.T.M.)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학교(Universiteit vir Potchefstroom, 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